

문헌에 나타난 명의 설화의 유형 분석

이 경 희

한국한의학연구원

Types of narratives about great doctors in literature

Lee Kyoung He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Narratives are the old stories handed down for a long time, which are not personal creations but common ones for ages. They were formed from the public consciousness, passed orally and recorded in letters. There have been lots of studies on narratives about characters, whereas there have been poor in the studies on the great doctors.

The author examined the narratives about great doctors in literature for successive generations, and made researches on world view and consciousness of reality reflected on the age directly or indirectly. The author inquired into the descriptions and constructions of the narratives separately, and classified the great doctors in literature into the miraculous doctors, eccentric doctors and righteous doctors. Therefore truly great doctor is the one who treats not only personal diseases but also social problems, and who tries to harmonize with human beings and nature.

Keyword : narratives about great doctors, miraculous doctors, eccentric doctors, righteous doctors

I. 서론

설화는 오랫동안 이어 내려온 옛날이야기로서 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 공동 창작물이다. 민중의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되어 구전되며 변화하다 문자화되어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설화는 여러 모티프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건국 설화, 재생 설화, 효행 설화, 열녀 설화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설화의 유형 중에서 명의(名醫) 설화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명의 설화는 설화 속에 명의 모티프가 들어있는 모든 이야기를 통칭하

며, 이는 실제로 있었던 인물뿐 아니라 존재유무가 불분명한 인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인물 설화가 연구되었으나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병을 고치는 명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명의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에 대해 모색하며 바람직한 명의상을 찾고자 하였다. 명의 설화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강진옥, 김명수, 이지연의 논문이 있고, 그 밖의 대부분의 연구는 효행 설화나 열녀 설화 속에서 효(孝)와 열(烈)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써 치병(治病)현상을 간략하게 다루어 왔다.

명의 설화에 대해 다룬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진옥은 “명의담은 질병의 치료를 통해 명의의 능력과 그 치료 과정에 개입하는 치료원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라고 언급하며, 명의를 ‘우연의 명의’ 와 ‘수련의 명

접수 ▶ 2007년 11월 18일 수정 ▶ 2007년 11월 28일 채택 ▶ 2007년 12월 22일
교신저자 ▶ 이경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8-9318 Fax 042-863-9463 E-mail leigh100@kiom.re.kr

의’, ‘초월적 능력 획득의 명의’, ‘명의와 효’로 나누고 있다. 그러면서 명의의 신이한 의술의 시행과 획득 과정보다도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인간적인 실수와 한계를 통한 차원 발전된 새로운 단계의 능력을 획득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¹⁾ 더 나아가 민담 유형을 생자(生者)와 사자(死者)로 분류하고 그중에서 살아 있는 자를 위한 이인형으로서 명의 설화를 구분하고 있다. 또 구전 명의 설화와 문헌 명의 설화와의 차이를 언급하며 문제와 해결의 구조를 분석하고 의미층위를 구체화하여 해석하고 있다.²⁾

여기에서는 『계서야담(溪西野談)』, 『청구야담(靑邱野談)』, 『동야휘집(東野彙輯)』에 나타나는 명의 설화를 왕의 질병과 치료의 단계와 백성의 병과 치료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명의의 성격을 구비 설화와 문헌 설화를 통해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는 표현 수단에서 오는 성격적 차이일 뿐이고 논의의 본격적인 의미 해석과 문제의 해결 방법은 구비 설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김명수는 구전되어 내려오는 명의 전설에 대한 구체적인 존재 현상을 체계화하여 병의 치료 방법을 기준으로 ‘명의 전설’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더불어 명의 전설의 의미와 기능이 단순히 의술 행위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민중의 지혜와 슬기를 담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³⁾

이지연은 연구 대상을 병의 치료가 주된 줄거리인 ‘치병 설화’로 지칭하며, 명의의 등장 유무와 관계없이 병에 걸리고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포함된 설화까지 연구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치병 설화의 전승 양상을 정리하고 설화에 나타난 병에 대한 인식을 통해 병과 삶에 대한 인식과 치병을 대하는 자세까지도 살폈다.⁴⁾

위의 연구들에서 명의 설화는 명의담이나 명의 전설, 또는 치병 설화로 정의되면서 작업되어 왔다. 이런 논의는 본고의 문제의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이에 본고는

구비 설화와 문헌 설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명의 설화’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비설화에서 명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명의 설화는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고 차후에 논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따라서 이번 논고에서는 『구비문학대계』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명의 전설’이나 ‘치병 설화’와는 다르게, 문헌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명의 설화’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명의 설화’는 명의 모티프를 담고 있는 설화를 지칭하는데, 여기에서 명의 모티프는 의원이 설화의 중심에 등장하여 흐름을 이끌어 나가며 환자의 병을 치료하거나 약을 처방해 주는 행위와 과정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이 등장하지 않고 민간요법을 통해서 병을 고쳤거나, 약을 먹었다거나, 의원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설화의 초점이 치병(治病)에 있지 않고 현실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에 대한 문제의식 등에 있을 경우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그리고 가령 지극한 효심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태운다거나 피를 흘려 넣어주는 효자·효부의 경우 역시 제외하였다.

본고는 『어우야담(於于野談)』을 비롯하여 조선조 후기의 대표적인 야담집과 후기 여항문학 작품집을 자료로 문헌 속에 나타나는 ‘명의 설화’를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설화 속에 등장하는 명의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개별 작품의 서사분석을 통해 서사적인 기능을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의미 확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설화에 직·간접적으로 투영된 당대의 현실인식과 세계관을 고찰하는 것이며, 이로써 설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설화향유층의 의식(意識)세계까지 접근할 수 있다.

논지를 전개하는 가운데 명의의 의료행위에 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나 의학적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여부는 다루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이는 문학적인 설화 연구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II. 본 론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간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문학을 이해한다면, 그 문학을 생산하는 창작자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상당부분 문헌 설화에 반영되어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당대의 창작자들이나 향유자들의 현실 인식과 태도가 작품에 내재되어 있다.

야담은 상당 부분이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그 내용이 사실적이든 허구적이든 간에 흥미롭게 여겨

1) 강진옥, 「명의담에 나타난 인간 및 세계인식」, 『민속어문논총』,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2) 강진옥, 「구전설화 유형군의 존재양상과 의미층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85.
 3) 김명수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조사된 명의, 명약, 풍수와 관련된 치병 설화들 중에서 명의로서 구체적인 성명이나 행위가 드러나 있거나 설화 내용 가운데 명의로서 인식이 분명한 것을 선택하여 명의 전설이라 명하고 있다. 또한 명의 전설을 사실 계열과 허구 계열로 분류하고, 사실 계열은 명의 의술담과 명의탕담으로 허구 계열은 교훈담과 신비담, 소담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김명수, 「구비명의전설 연구」, 경산대학교 석사 논문, 1997).
 4) 이지연, 「구비 설화에 나타난 치병관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논문, 2007.

지는 견문을 기록한 것이다.⁵⁾ 『어우야담(於于野談)』, 『청구야담(靑邱野談)』, 『동야회집(東野彙輯)』, 『계서야담(溪西野談)』과 같은 야담집은 시정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중에서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가리지 않고 기록한 것이다. 또한 『이향견문록(異鄉見聞錄)』, 『호산외기(壺山外記)』⁶⁾와 같은 작품집에는 18, 19세기의 중인층을 중심으로 서민 내지 방외인들에 대한 전기(傳記)가 기록되어 있다. 동시대, 또는 그 이전 시대를 살아간 서민층에서부터 중인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형상화한 특성으로 인해 이런 문헌 설화에는 명의 모티프의 설화들이 더욱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명의 설화는 독립된 삽화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같은 이야기가 다른 의원의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삽화가 다양한 조합을 이루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 이유로 명의 설화는 각 삽화를 나누어 살펴보는 방법으로 유형 분류를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⁷⁾ 그래서 유형 분류에 앞서 해당 작품의 삽화 분석을 전제로 한다.

본론에서는 명의 모티프를 지닌 문헌 명의 설화의 구조 분석을 통해 명의 성격을 신인(神人)형 명의, 이인(異人)형 명의, 의인(義人)형 명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1. 신인(神人)형 명의

민중들은 어떤 인물을 위대하다거나 신비한 능력을 지닌 비범한 인물로 인식하면, 그에게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여러 삽화를 차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⁸⁾ 여기에서도 설화에 등장하는 명의를 신의(神醫)로 형상화하기 위해 다른 삽

화와 결합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삽화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신의와 단순히 기이한 능력의 의원을 구분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즉 주인공인 명의가 초월적인 존재와 만나거나 신성한 공간⁹⁾을 통과하거나 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신성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런 전개양상으로 인해 기이한 명의와 차별성도 갖게 되는 것이다.

1) 노학구(老學究)

- ① 동현(銅峴)의 한 약국에 노인이 찾아와 손님을 기다리기로 하였다면서 며칠을 묵었다.¹⁰⁾
- ② 하루는 서인(庶人)이 찾아와 부인이 해산(解產)하다 인사불성이 되었다며 약을 구했다.
- ③ 노학구가 광향정기산(靑香正氣散) 세 첩을 처방하여 약국 주인이 지어주니, 그이의 병이 나았다.
- ④ 저녁때 다른 이가 와서 세 살 아들의 두창 약을 지어 달랬다.
- ⑤ 노학구가 다시 광향정기산 세 첩을 처방하여 약국 주인이 지어주니 마찬가지로 병이 나았다.
- ⑥ 그 이후로 소문이 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광향정기산을 처방하자 이 또한 모두 나았다.
- ⑦ 한 재상의 아들이 찾아와서 친환(親患)의 좋은 처방을 청하자, 노학구가 다시 광향정기산을 처방하였다.
- ⑧ 재상 아들이 부친에게 이상한 노인의 이야기를 하고 광향정기산이 아닌 다른 약을 달여 올리자, 재상은 광향정기산을 달여 먹고 완쾌하였다.
- ⑨ 재상이 아들을 시켜 노인을 모셔오라 하였더니 노인은 불쾌한 표정으로 떠나버렸다.
- ⑩ 얼마 뒤 임금이 위예(違預)로 인해 병이 위중해졌을 때 재상이 학구의 일을 이야기하였다.
- ⑪ 임금이 광향정기산을 달여 먹고 완치했다.¹¹⁾

노학구(老學究)란 늙은 서생이라는 뜻이다. 이 설화는 『청구야담』과 『청야담수』에 실린 이야기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광향정기산으로 만병을 고쳤던 신이한 존재의 이야기이다.

5)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131.

6) 『호산외기』는 조희룡이 직접 교유한 인물이거나 교유한 인물을 통하여 전해들은 실제 인물들을 기록한 전기집이다. 이 책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에서는 『호산기(壺山記)』로 되어 있고, 오세창의 『근역서화정(楹域書畫徵)』에는 『호산외사(壺山外史)』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써 준 유재건의 『이향견문록(異鄉見聞錄)』의 서문과 인용 서목에 『호산외기(壺山外記)』로 표기되어 있다. 호산은 그의 호이며 외기는 정사(正史)와 구별해서 쓰는 말이다. 또한 호산외기는 유재건의 『이향견문록』(1862)과 이경민의 『회조일사』(1866)로 이어지는 19세기에 이룩한 중인층 전기집의 기초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으며, 다른 어느 책에서도 다 중인층으로서의 신분적 자각과 함께 전기 작가로서의 투철한 자의식이 투영되어 있다(고전문학연구회 역주, 『호산외기』, 『조희룡 전집』, 6, 한길아트, 1999:21-23).

7) 이지연, 전계서, pp.10-11.

8) 이경업, 「정수설화의 전승양상과 전승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91:81.

9) 빅터 터너는 『제의에서 연극으로』(이기우, 김익두 옮김, 현대미술사, 1996.)에서 사회에서 분리되어 이상을 초월하는 전환의례의 과정을 거치는 공간을 전이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쓰여진 김영미의 논문 「광재우장군 설화의 영웅전승 양상 고찰」을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주인공이 신이성을 확장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신성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김영미의 관점을 차용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김영미, 『광재우장군 설화의 영웅전승 양상 고찰』, 『동남아문논집』, 2001:13).

10) 『동야회집』에서는 동현(銅峴)의 약포(藥舖) 주인이 허준(許濂)으로만 바뀌었다.

11) 최웅, 『(주해)청구야담』 2, 국학자료원, 1996:178-184, 김동욱 역, 『(국역)청야담수』 1, 보고서, 2004:293-300.

본디 곽향정기산은 원래 소화기 계통의 치료에 쓰이는 약으로, 출산을 하다 인사불성이 된 여인을 살린다거나 두창으로 죽어가는 아이에게 처방하는 약이 아니다. 재상이 앓고 있던 백약이 무효한 이름 모를 병이라든지, 임금이 위예(違預)로 인해 얻어진 병 또한 그러하다. 하지만 노학구는 임금의 몸에 병이 날 것을 예견하고 이 약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손님을 기다린다고 약국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곽향정기산으로 치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노학구가 예지력을 가진 초월적인 존재이자, 신통하고 신묘한 능력의 명의임을 알려준다.

『청구야담』에는 이 노학구의 이야기만 실려 있으나, 『청야담수』에서는 노학구의 이야기에 실존 인물인 허준(1539~1615)이 ①번 삽화와 같이 결합하여 재구성되어 있다. 이는 원래 노학구의 이야기만 따로 전해 내려오다, 약방 주인을 허준이라는 실제의 명의 이름으로 붙임으로써 설화의 신빙성을 높이고 허준의 신묘한 의술을 초월적인 존재와의 만남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헌설화 또한 구비전승 되던 이야기를 기록한 자료라는 특징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당연한 성격으로, 당시 민중들이 허준의 의술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신비한 존재로 신성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허준은 이 노학구와의 만남 뒤에 의술이 점점 진보하였다. 허준의 의술은 노학구의 깨우침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임진란 때 어의로 호종(扈從)하여 공을 세웠고 저서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남겼다” 고 『청야담수』에 기록되어 있다.

2) 정진사(鄭進仕)

- ① 자하동(紫霞洞) 정진사(鄭進仕)는 서화·의약·악기·바둑·점술에 통달하고 술을 잘 마셨으나 집이 가난했다.
- ② 하루는 이름이 백화(白華)라 하는 미소년이 찾아와 정생(鄭生)이 평생 맛보지 못한 술을 대접하는데, 그러기를 십여일 동안 계속하였다.
- ③ 백화는 정진사에게 부친 병을 살피주기를 부탁하였다.
- ④ 백화의 안내로 양화도(楊花渡)에서 배를 타고 낯선 땅에 도착하였다.
- ⑤ 백화의 안내로 한 궁궐에 들어가 연유를 물으니 자신은 백화주(白華州)의 태자(太子)이며 부왕에게 병이 있다고 하였다.
- ⑥ 다음날 정진사가 왕을 진맥하니, 그 병은 소나무를 오랫동안 삶아먹은 후 등에서 반송(盤松)이 자라고 있는 병이었다.
- ⑦ 정진사가 도끼를 술에 넣고 삶아서 반송에 붓고 왕에게 마시게 하니 병이 나왔다.
- ⑧ 며칠간 대접을 받은 후 그가 고향에 돌아가기를 청하니 왕이

주석(酒石)을 주었는데, 이는 미주(美酒)가 끝없이 생기는 보물이었다.

- ⑨ 정진사는 돌아와 집사람에게 그간의 일을 말하고, 주석을 갖추어 평생 장취(長醉)하였다.¹²⁾

정진사는 허구의 인물이다. 이 설화는 『청구야담』과 『청야담수』에 동일하게 실린 설화로 백화국의 국왕 등에서 자라는 반송을 치료한 신이한 능력의 명의 이야기이다. 의술에 능한 정진사를 찾아온, 이 세상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소년 백화는 초월적인 존재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백화는 신성한 공간 백화국으로 정진사를 이동시켜 자신의 아버지인 국왕의 병을 낮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는 정진사에게 부여된 과제로 볼 수 있다. 즉 신성 공간은 과제 수행의 공간으로써 이곳에서 정진사는 소나무의 독을 도끼 삶은 물로 치료하여 과제를 해결한다. 이렇듯 주어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신성한 공간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한 정진사는 백화국의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주석(酒石)만을 가지고 현실 공간으로 되돌아와서 안빈낙도의 삶을 산다.

3) 유상(柳常)

- ① 유상(柳常)은 숙종(肅宗) 때의 명의(名醫)이다.
- ② 유상이 정상도 감영으로부터 노새를 타고 돌아오는데 노새가 갑자기 달려 한 산촌(山村) 노인의 집에 이르렀다.
- ③ 노인이 보지 말라는 책을 보아 천연두의 비방(秘方)을 섭렵하였다.
- ④ 다음날 노인이 출발을 재촉하였다.
- ⑤ 판교(板橋)를 지날 때 임금의 천연두 치료를 위해 대궐로 안내되었다.
- ⑥ 동현(銅峴)을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아이를 업은 노파에게 천연두 고친 약을 묻자 ‘시체탕(柿蒂湯)을 썼다’는 말을 듣고, 노인의 집에서 보았던 책에서 같은 내용이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된다.
- ⑦ 유상이 입궐하여 시체탕(柿蒂湯)으로 임금의 병을 고쳐 명성을 얻었다.
- ⑧ 이웃에 사는 과부의 유복자(遺腹子)가 천연두에 걸려 유상이 극력 고치려 했더니, 어떤 이가 꿈에 나타나 ‘그 아이는 나의 원수이니 죽이고 말리라’ 하였다.
- ⑨ 곧 임금의 천연두 후유증으로 입궐하게 되고 그 아이는 죽고 말았다.
- ⑩ 임금의 병에 저미고(猪尾膏)를 써야 하기에 명성대비(明聖大妃) 몰래 써서 고쳤다.
- ⑪ 유상이 고양(高陽) 군수로 있을 때 숙종(肅宗)이 연포탕(軟泡

12) 『(주해)청구야담』 3, pp.376-381, 『(국역)청야담수』 1, pp.301-308.

湯)을 먹고 체하여 급히 불렀다.

- ⑫ 새문 밖에서 문 열리기를 기다리던 중 우연히 한 노파로부터 ‘두부가 쌀뜨물에 녹는다’는 것을 듣고 쌀뜨물로 임금의 병을 쾌치(快治)하였다.¹³⁾
- ⑬ 꿈에 한 상공(相公)이 병에 걸렸음을 듣고 상경해 보니 과연 사실이므로 자초용(紫草茸)을 써서 고쳤는데, 그가 후일 국상 윤동도(尹東度)이다.¹⁴⁾

유상은 숙종 때 의원이다. 이 설화는 『계서야담』, 『청구야담』, 『동야회집』에 실려 있다.

『계서야담』과 『청구야담』에는 ①번과 ⑧~⑫번의 삽화가 동일하게 들어있고, 『동야회집』에는 ②~⑥번과, ⑬번의 삽화가 더 첨가되어 ①~⑬번까지 온전하게 들어있다. 또한 ⑧, ⑨번의 삽화는 『어우야담』의 안덕수 설화의 병귀신 소재가 차용되어 있다. 이렇게 설화 속 각각의 삽화들을 살펴보면, 이 각각의 모티프는 긴밀하게 짜여져 있으나 모티프간의 연결이 매우 산만하다¹⁵⁾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편저자가 여기저기서 듣거나 읽은 설화를 유사 주제나 특정인의 행적에 우겨 넣었다¹⁶⁾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많은 삽화를 포함하고 있는 『동야회집』의 유상 설화는 『어우야담』의 안덕수 설화¹⁷⁾에 나타나 있는, 병귀신

소재를 끌어다 유상이 숙종 임금 두창을 낮게 한 사실과 결합하여 구성된 이야기이다. 『어우야담』의 안덕수는 귀신이 꿈에서 협박을 하자 핑계를 대고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는 내용인 반면에, 유상은 이에 맞서 약을 써서 계속 치료하려 했지만 임금님께서 천연두를 앓아 유상을 부르는 바람에 아이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로써 병귀신의 뜻도 이루고 유상은 신이한 능력을 가진 의원으로서 치료에 실패하는 상황을 모면하게 되어 조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¹⁸⁾

다음으로, 유상이 신성한 공간을 거쳐서 신이성이 확대되는 부분은 ②~⑦까지의 삽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상은 젊어서 재주는 있었지만 오묘한 경지는 터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노새가 자의적으로 이끈 신성한 공간에서 천연두의 비방을 읽게 된다. 산 속 깊은 곳에 위치한 신비한 공간의 주인은 방 안의 책을 보지 말라고 하였으나, 손님인 유상을 그 방으로 데려가고 자리를 비웠으니 이는 유상으로 하여금 비방을 읽는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신성한 공간에서 신이한 존재인 노인의 도움으로 신묘성을 획득한 유상은 현실공간으로 돌아와서 임금님의 두창을 시체탕(柿蒂湯)으로 치료함으로써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현실에서 주어질 과제를 신성한 공간에서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미리 습득하여 온 것으로 유상의 신성성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삽화에는 유상이 속세로 돌아와 신의(神醫)로서 펼치는 활약과 계속되는 조연자의 도움이 그려지고 있다. 예컨대 순두부를 먹고 체한 임금을 고치려고 달려온 유상이 성 밖의 노인에게서 두부가 쌀뜨물에 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금의 병을 고치는 것이나, 훗날 국상이 될 아이의 치료를 꿈을 통해 예지해주는 것이 있다.

이렇듯 설화는 그 설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의원들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부여하고 그들을 신성

13) 이희준 편, 유화수, 이은숙 역,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234-238, 『(주해)청구야담』 2, pp.281-284.

14) ②~⑦, ⑬번 삽화는 『동야회집』에만 첨가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가장 많은 삽화를 포함하고 있는 『동야회집』의 유상설화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한다(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동야회집』, 『한국 문헌설화전집』 3, 태학사, 1981:322-328).

15) 성기동은 이 설화를 5개의 복수 모티프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하며 단일 주제 유상과 복합 객체 구조의 ‘절 가지런한 이야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모티프 (②~⑦): 유(柳)가 시체탕(柿蒂湯)으로 임금의 병을 고치다.

제 2 모티프 (⑧, ⑨): 유(柳)가 과부의 유복자의 병을 고치는데 실패하다.

제 3 모티프 (⑩): 유(柳)가 저미고(猪尾膏)로 임금의 천연두 후유증을 고치다.

제 4 모티프 (⑪, ⑫): 유(柳)가 쌀뜨물로 임금의 연포탕(軟泡湯) 급제를 고치다.

제 5 모티프 (⑬): 유(柳)가 자초용(紫草茸)으로 윤동도(尹東度)의 병을 고치다.

이는 야담의 구조가 여러 개의 자료에서 필요한 모티프만 떼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편집한 것이거나, 하나의 자료를 모티프 별로 나누어 여러 개의 작품으로 분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가 단순하거나 복잡하거나 간에 허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성기동, 『조선조 야담의 문학적 특성』, 민속원, 1994, p100).

16) 상계서, p98.

17) 다음은 안덕수(安德壽) 설화의 삽화이다.

① 안덕수(安德壽)는 소경대왕(昭敬大王) 때의 명의(名醫)이다.

② 양예수(楊禮壽)는 패도(霸道)를 써서 빠른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상하는 사람이 많았다.

③ 안덕수의 투약 방법은 왕도(王道)와 같아서 효력은 느리지만 사람을 상하는 일은 없었다.

④ 한 사람이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수개월 앓고 있어서, 안덕수가 증세에 따라 바꿔가며 다섯 차례 약을 지어주었으나 병이 낫지 않았다.

⑤ 어떤 이가 꿈에 나타나 ‘아픈 사람과 불구대천 원수지간이니 그를 죽이지 못하면 당신을 죽이겠다’ 하였다.

⑥ 여섯 차례 증세가 바뀐 병자에게 안덕수가 약을 주지 않아 결국 죽고 말았다.

설화간의 삽화 분석을 통해 『어우야담』의 안덕수 설화에서 등장한 병귀신 소재를 유상 설화에서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유몽인 저, 이민수 편, 『어우야담』, 명문당, 1993:363-365).

18)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1,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8:462-464.

한 존재로 파악하여 불가피한 질병과 그로 인한 공포를 신의(神醫)를 내세워 이겨내고자 했던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 돌아 사망자가 속출할 경우 죽음을 앞둔 환자의 마음은 불치병을 고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 이인(異人)형 명의

조동일은 이인(異人)을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잘 드러내지 않는 인간 부류라고 규정하였다.¹⁹⁾ 여기에서는 이인형 명의를 설화에 등장하는 이인적 면모를 가진 사람으로 보고 기이한 의술을 소유한 의원으로 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인형 명의 설화에서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조연자가 개입하지도 않고, 신성한 공간으로 이동하여神通한 능력을 획득하여 현실공간으로 되돌아오는 전개양상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이 강조된다. 비범한 능력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뿐 아니라 환자의 증세를 묻지 않고도 얼굴색과 행동거지를 통해 알아내거나 환자의 얼굴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목소리만 듣고도 병세를 진단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또한 글자 하나 못 읽고 의서 한권 배운 적이 없는 의원이 정묘한 의술을 발휘하는 것 또한 이인형 명의가 갖고 있는 비범함이라 할 수 있다.

1) 김응립(金應立)

- ① 김응립(金應立)은 영남의 상천(常賤)으로 목불식정(目不識丁)이나 신의(神醫)이다.
- ② 김응립은 진맥을 잡거나 증세를 논하지 않고, 모습과 얼굴빛을 살펴서 병을 알아내었고 그 약 또한 재료 가운데 늘 쓰는 것이었다.
- ③ 금산의 원님 이명(李銘)의 며느리가 해수(咳嗽)의 기침이 심하여 김응립이 국수²⁰⁾를 물에 녹여 먹었더니 가지를 토해내며 병이 치유되었다.
- ④ 이명의 조카사위의 고질병을 낙엽을 달여 마시게 하여 낫게 하였다.
- ⑤ 한 사람이 활을 당긴 모양처럼 젖혀지는 병에 걸리자, 침으로 침을 만들어 콧구멍을 찌르게 하고 숨을 들이쉬게 하였더니 병이 나왔다.²¹⁾

19) 조동일, 「구전설화에 나타난 이인의 면모」,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1985:138.

20) 국수(飮)로 보기도 하고 옛(飮)으로 보기도 한다.

21) 『계서야담』, pp.23-24.

2) 신만(申曼)

- ① 신만(申曼)의 자는 만재(曼債)인데 의술이神明(神明)하여 환자를 보면 그 생사(生死)를 알았다.
- ② 세시(歲時)에 신만이 고모인 부제학 이지항(李之恒)의 부인에게 세배를 갔다가 한 사람을 보고는 금년 4월에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③ 그 사람은 웃으며 하직하고 떠났다.
- ④ 부제학의 손자 이진(李震)이 그 사람을 약을 써서 고쳐달라고 하자, 신만이 동의보감을 가져 오라고 했으나 마침 책이 없어 약을 짓지 못하고 말았다.
- ⑤ 그 사람은 결국 4월에 죽었다.
- ⑥ 그 후 이진(李震)이 말하기를 ‘기인(其人)이 신의(神醫)를 만나고도 생도(生道)를 묻지 아니하였으니 그 죽음이 마땅하다’ 하였다.²²⁾

위의 김응립과 신만 설화에서 나타난 의원은 병자의 맥을 잡아보지 않고 얼굴색이나 그 모습을 통해 병을 진단하는 범상치 않은 명의이다. 환자를 진맥하거나 증세를 물어보지도 않고 시각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을 망진이라 한다. 망진(望診)은 몸의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는 망문문절(望聞問切)이라고 하는 네 가지 진단방법 중 하나이다. 그런데 ‘망(望)’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거나 아득하게 보이는 것(亡 혹은 茫)을 무언가 기대하면서 멀리 바라보는 것까지 의미한다. 고로 ‘망(望)’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물이 눈에 비추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드러난 기미나 징조를 보고 현재는 물론 미래를 예지하는 방법인 것이다.²³⁾ 그래서 신만은 환자의 현재의 병세뿐 아니라 몇 달 후의 상태까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동(李同)

- ① 이동(李同)은 그 이름을 알지 못해, 자로써 불려졌다.
- ② 글을 몰랐으나 종기를 고치는 의원으로 이름이 세상에 퍼졌다.
- ③ 그는 침과 뜸 말고는 손뼉, 터럭, 오줌, 똥, 침, 때 따위의 약재를 사용하였고, 비록 풀이나 나무, 벌레, 물고기를 쓰더라도 모두 한 톨에 지나지 않았다.
- ④ 정조가 치질을 앓아서, 이동이 치료하였다.
- ⑤ 한번은 안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만 듣고 내용증(內癰症)을 진단하고, 침으로 옆구리를 찌러 고름을 흘러내 치료하였다.²⁴⁾

22) 『주해)청구야담』 2, pp.163-164.

23) 박석준, 「한의학의 인식론적 특징」, 『한국의철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006:30.

이동은 망문문절(望聞問切)의 진단방법 중 문진(聞診)을 사용한 의원이다. 일자무식의 의원이었으나 침과 뜸의 명수였고, 기침 소리만 듣고도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한 몸 속에 저절로 좋은 약재가 갖추어져 있다면서 손톱, 머리털, 오줌, 땀, 침, 때 따위를 약으로 주로 사용하고, 그 외의 것들을 사용할 때도 한 푼의 값어치도 나가지 않는 것을 처방하였다. 이는 귀한 약재의 처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는 신기한 처방이었다.

4) 안찬

- ① 안찬(安瓚)은 종종 때에 이름난 의원이었다.
- ② 의술이 뛰어나서 예부터 전해오는 처방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고쳤다.
- ③ 한번은 어떤 사람이 밤늦게 말을 타고 외출했다가, 두 눈가죽이 갑자기 붙어버려서 장님이 되고 말았는데, 안찬이 약으로 치료했더니 곧 나왔다.
- ④ 어떤 여자가 음문이 아프더니 누렇게 검은 털들이 계속 자라서 안찬이 피를 다스리는 약을 써서 치료하였다.
- ⑤ 어떤 여자가 아침에 양치질을 하는데, 혀끝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여 며칠씩 그치지 않았다. 안찬이 심장 다스리는 약을 지어 먹게 했더니, 곧 그쳤다.²⁴⁾

안찬은 의술이 정묘하여 옛 처방에 없는 질병이라도 직관적으로 치병의 이치를 파악하여 병자를 치료한 이인(異人)이다. 이는 의서에 쓰여진대로만 따르는 의원들의 관습을 비판하며 병세의 현상에만 집착하지 않고 주체적인 직관으로 질병에 접근하여 치료한 것이다. 그는 눈이 붙어버린 병에 간을 치료할 약을 가르쳐주고, 혀끝에서 피가 나오는 여인에게 용뇌소합향원(龍腦蘇合香元)을 처방하여 눈에 보이는 증세 너머의 속병까지 헤아리는 혜안을 갖고 있었다.

이렇듯 이인형 명의는 시각이나 청각을 통한 기의 감응으로 병자의 병세를 정확하게 맞추고 병의 증세를 예측하는 기이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비범하기도 하다. 이들은 단편적으로 병세를 판단하지 않고 병의 근원을 총체적으로 헤아려 직관과 통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가 기이하고 정묘한 명의이다.

3. 의인(義人)형 명의

의인형 명의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실천하는 의로운 의원이다. 이들은 침 하나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여러궁민

(閭里窮民)을 실행하며, 혹은 시행착오를 겪는 수련의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명의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비범하고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개와 절조를 지니고 있고 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환자가 생기면 귀천을 따지지 않고 치료하는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나, 예절로 대하지 않으면 굽히지 않는 기개를 지니고 있어 자신의 일에 대하여 강한 자부심 또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수련을 통해 습득한 정묘하고 뛰어난 의술을 부(富)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민중의 의원으로서 본분을 지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1) 조광일(趙光一)

- ① 호우(湖右) 조광일(趙光一)은 홍주(洪州)에서 의술을 익혔는데 탕약을 쓰지 않고 침술로 병을 다스리며 스스로 침의(針醫)라 명했다.
- ② 가난한 백성이 창하면 바로 쫓아가서 병세를 살피주었다.
- ③ 혹자가 귀한 사람을 사귀어 공명을 취하라고 하면, 여러궁민(閭里窮民)을 위해 만명을 살리겠다고 하였다.²⁶⁾

조광일은 침의로 이름이 높았던 의원으로 가족 주머니 속에 구리침쇠침 열 개를 넣고 다녔다고 한다. 그 침으로 악창(惡瘡)을 터뜨리고 상처를 치료하였으며 어혈을 풀고 풍기(風氣)를 퇴우고 절름발이와 꼬추를 일으켜 세웠는데, 즉시 효험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고 하니 명의이다. 그런데 그가 진정한 명의라 칭해지는 것은 뛰어난 의술 때문이 아니라 성품이 강직하고 부귀를 탐하지 않아 가난한 사람을 많이 치료해 주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거나 명성을 높이려 하지 않고 오로지 의술로써 위급한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자신의 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참된 의원의 현신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2) 백광현(白光炫)

- ① 태의(太醫) 백광현은 인조 때에 태어났다.
- ② 처음엔 말의 병을 잘 고쳤는데, 오로지 침(鍼)만 써서 치료할 뿐이지 방서(方書)에 근본하지 않았다.
- ③ 사람의 종기를 치료함에 처음엔 침을 너무 세게 써서, 어떤 때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에게 효험을 보고 살아난 사람들이 차츰 많아졌으므로, 병자들이 날마다 그의 때문에 모여들었고, 백광현 역시 환자의 치료에 더욱 힘을 썼다.

24) 『호산외기』, pp.118-122.

25) 허경진 위음, 『평민열전』, 평민사, 1989:89-90.

26) 『(주해)청구야담』 1, pp.131-133.

- ④ 대개 종기에 독이 가득 차면 근(根)이 생기는데, 옛 처방으로 이걸 고칠 법이 없었다. 광현은 이런 종기를 보면 반드시 커다란 침을 써서 근을 발라내어 죽을 사람도 살렸다.
- ⑤ 숙중 초엽에 어의(御醫)로 뽑혔는데, 공을 세울 때마다 품계가 더해지곤 해서 종 1품에 이르렀다. 벼슬도 현감(중 6품)을 지냈다.
- ⑥ 그는 병자들을 대할 때에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부름이 있으면 곧 달려가서 자기의 정성과 능력을 다하였다.
- ⑦ 내(유재건) 나이 열다섯 때에 외삼촌 강군(姜君)이 입술에 종기를 앓았다. 백태의(白太醫)가 오늘 밤에 죽을 것이라 하였는데, 결국 죽었다.
- ⑧ 이렇듯 그의 진단은 늙은 노인이 되어서도 털끝만한 실수가 없었다.²⁷⁾

백광현은 말(馬)의 종기를 치료하다 나중에 사람의 종기까지도 치료함으로써 유명해졌다. ③번 삽화처럼 처음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으나 끝없는 수련을 통해 그 의술이 정교해졌다. 게다가 임금의 병을 치료하여 현감에게까지 올랐으나 전혀 교만해지지 않았다. 초심을 잃지 않고 병자가 부르면 귀천과 친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마음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 병자의 상태가 좋아진 것을 본 뒤에야 그쳤다. 나이가 많고 임금을 고치는 높은 벼슬에 올라도 백성을 생각하여 의술을 행하는 이러한 면모는 명의가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이익성(李益成)

- ① 이익성(李益成)은 정조 때 사람으로 젊어서 가난하였기에 어느 벼슬아치의 집에 식객으로 있었다.
- ② 당시 허조(許照)는 뛰어난 의원이었는데, 익성에게 담뱃불을 붙여 올리라고 시키자 익성은 화를 내며 그곳을 떠나가 버렸다.
- ③ 그 뒤로 익성은 의술(醫術)을 배워 10년 만에 훌륭한 의원이라고 소문이 났다.
- ④ 어느 고귀한 사람이 양명(陽明)을 앓아 허조가 치료했지만 효험이 없었는데, 익성이 허조 앞에서 그 사람을 백호탕(白虎湯)으로 치료했다.
- ⑤ 어느 벼슬아치의 아들이 하루 밤에 갑자기 병어리가 되자, 익성은 동전 한 잎과 파두씨 몇 알을 병어리의 콧구멍에 넣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재채기를 한 번 하며 병어리의 말문이 되었다.
- ⑥ 익성은 가난하고 천하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힘을 다하여 치료하지만 예절로써 대하지 않으면 비록 정승·판서와 같은 귀한 사람이라도 그를 굽히게 할 수 없었다.²⁸⁾

이익성은 허조가 담뱃불을 붙이라는 말에 화를 내고 10년 동안 의술을 배운 수련의이다. 자신에게 담뱃불을 붙이려 했던 허조가 고치지 못했던 병을 백호탕(白虎湯)을 처방하여 낫게 할 정도로 높은 실력을 키운 것이다. 이익성은 가난하여 남의 집에 얹혀 있을 때도 자신을 낮추면서 비굴하게 살지 않았고, 명의를 된 후에도 예의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치료하지 않았다. 의술을 천한 기술로 여기던 시대에 대부분의 의원은 귀하고 현달한 사람들과 사귀어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부귀를 축적하려 하는데, 이익성은 자신을 예절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천민이라도 달려가 힘껏 치료해주었다는 점을 볼 때 기개가 높고 강직하며 백성들을 위해 의술을 펼쳤던 명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의인(義人)형 명의는 비굴하게 자신을 낮춰 부귀를 탐하지 않고 강직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다. 높은 기개와 곧은 절조를 지니고 자신의 일에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의술을 펼치는 명의인 것이다.

III. 결 론

이상으로 문헌 속에 실린 명의 모티프의 설화들을 통해 서민층에서부터 중인층에 이르기까지 의료행위를 펼쳤던 의원들을 살펴보았다. 문헌 설화에 등장하는 명의가 구비 설화에 등장하는 명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배경과 인물의 행적이 드러나며 사실적인 처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특징 덕분에 좀 더 객관적·사실적으로 명의 설화에 접근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명의 모티프의 설화를 삽화 중심으로 분석하여 구조적인 방법론을 통해 명의의 유형을 크게 신인(神人)형 명의와 이인(異人)형 명의 그리고 의인(義人)형 명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신인(神人)형 명의는神通하고 신비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초월적인 존재와 만나거나 신성한 공간을 통과하거나 또는 이 둘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된 명의이다. 본문에서 초월적인 존재 노학구와 결합한 허준 설화, 백화국이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부여된 과제를 해결하고 돌아온 정진사 설화, 그리고 신성한 공간에서 천연두의 비법을 배워서 임금의 천연두를 고친 유상 설화를 살펴보았다.

27) 유재건 엮음, 이상진 해역, 『이향건문록』 하, 자유문고, 1996:458-460.

28) 『호산외기』, pp.69-74.

이인(異人)형 명의는 기이한 의술을 가진 인물로 초월적인 인물을 만나거나 신성한 공간을 통과하지 않고 오로지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만이 강조되는 명의이다. 이들은 김윽림과 신만처럼 망진(望診)으로 병을 진단하기도 하고 이동처럼 문진(聞診)으로 기침소리만으로도 증세를 파악하기도 한다. 안찬과 같은 이인형 명의는 눈에 보이는 병세에 집착하지 않고 오행의 이치나 몸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치병의 근원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질병을 고친다.

의인(義人)형 명의는 의로운 마음을 갖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의료 행위를 한 인물로 여기에는 기개와 절조를 지니고 있는 인물로, 조광일, 백광현, 이익성과 같은 의원이 있다. 이들은 나이 들고 높은 벼슬에 올라서도 귀천과 친소에 가리지 않고 환자가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정성을 다해 치료하는 진정한 민중의 명의이다.

더불어 설화에 형상화된 당시 민중들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 명의관과 교훈적인 면모를 분석해냈다. 또한 양반 사대부들의 시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간 명의의 자부심과 윤리의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이 척박할수록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치료하는 명의에 신격화를 통해 드러내는 삶에 대한 강한 회구 또한 역설적으로 살필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설화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양상이 당대 중인이나 평·천민의 일반적·보편적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무언가 ‘특별한 것’임으로 해서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터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허상이 아니라 전형적 실상이다. 이야기 내용의 필연적 현실성이 이를 뒷받침한다. 요컨대 이러한 이야기는 그 주인공들을 통해서 중·서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회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을 볼 수 있다.²⁹⁾

또한 생사가 판가를 나는 질병으로부터 만민을 구제하고자 하는 의원을 형상화한 설화에서 치병에 관한 이상과 이념을 이해할 수 있다. 천하에 퍼져 있는 세태의 병폐와 민중의 신체적 질병을 함께 치유하는 것이 진정한 치병이며 명의인 것이다. 치료 방법이 초자연적인 것이든 과학적인 것이든,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라고 불리는 것처럼 명의는 천지(天地)와 더불어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는 존재로 인간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즉 천지의 조화와 자연의 변화에 인체가 대응하여 맞도록 조절하는 사람이 명의인 것이다.

IV. 참고문헌

1. 강진옥, 「명의담에 나타난 인간 및 세계인식」, 『민속어문논총』,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2. 강진옥, 「구전설화 유형군의 존재양상과 의미층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85.
3.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호산외기』, 『조희룡 전집』 6, 한길아트, 1999.
4. 김동욱 역, 『(국역)청야담수』 1, 보고서, 2004.
5. 김명수, 「구비명의전설 연구」, 경산대학교 석사 논문, 1997.
6. 김영미, 「곽재우장군 설화의 영웅전승 양상 고찰」, 동남어문논집, 2001;13.
7.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1,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8.
8.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헌설화전집』 1, 태학사, 1981.
1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헌설화전집』 2, 태학사, 1981.
1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헌설화전집』 3, 태학사, 1981.
12. 박석준, 「한의학의 인식론적 특징」, 『한국의철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006.
13. 빅터 터너 저, 이기우, 김익두 옮김, 『제의에서 연극으로』, 현대미학사, 1996.
14. 성기동, 『조선조 야담의 문학적 특성』, 민속원, 1994.
15. 유몽인 저, 이민수 편, 『어우야담』, 명문당, 1993.
16. 유재건 엮음, 이상진 해역, 『이향전문록』 하, 자유문고, 1996.
17. 이경엽, 「장수설화의 전승양상과 전승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91.
18. 이지연, 「구비 설화에 나타난 치병관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논문, 2007.
19. 이희준 편, 유희수, 이은숙 역,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20. 조동일, 「구전설화에 나타난 이인의 면모」,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1985.
21. 최웅, 『(주해)청구야담』 1, 국학자료원, 1996.
22. 최웅, 『(주해)청구야담』 2, 국학자료원, 1996.
23. 최웅, 『(주해)청구야담』 3, 국학자료원, 1996.
24. 허경진 엮음, 『평민열전』, 평민사, 1989.

29) 신동훈,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재산과 신분의 관계」,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3, 보고서, 2001:324-325.